

탈북 2만5천명 중 2천명 제3국행·재입북

한국 떠나는 탈북자들... 脫南 행렬 실태와 대책

北 가족 못잇고 남한 생활 적응 어려움 브로커 비용 큰 부담... 맞춤형 지원 절실

새로운 삶을 찾아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에 와놓고도 다시 한국을 등지는 탈북자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을 포함한 제3국 행을 택하지만 일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한국에서 살다가 최근 재입북해 남한 사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박진근(49) 씨와 장광철(33) 씨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을 떠나는 탈북자는 얼마나 되고 이들은 왜 한국에 등을 돌리는 것일까. 탈북자 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에 왔다가 제3국으로 갔거나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 수는 많게는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누적 탈북자 2만5560명의 약 8%에 달한다.

이같이 추정할 뿐 한국을 떠난 탈북자들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통일부는 탈북자 수가 많을뿐더러 이들의 출입국 기록도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박진근 씨와 장광철 씨를 포함해 정부가 집계한 재입북 탈북자는 모두 12명이다. 이 또한 재입북 기자회견 등으로 공개된 사례를 합한 것이다.

제3국 행을 택하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선진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다.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는 1099명에 달한다. 난민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탈북자도 1027명이나 됐다. 이들 중에는 한국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간 탈북자도 포함돼 있다.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영국으로, 619명이었다. 이어 독일(138명), 캐나다(119명), 벨기에(61명) 순으로 탈북 난민이 많

다.

탈북자들이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가거나 재입북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잊지 못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도 있다. 돈을 벌러 중국에 간 탈북자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들이 한국 생활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한국을 떠나는 탈북자들의 행렬을 멈추게 할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거론되는 것은 탈북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브로커 비용이다. 이들은 보통 그 대가로 탈북자 1인당 브로커 비용 약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의 질

반에 가까운 액수다.

문제는 탈북자들이 브로커 비용을 치르지 못할 경우 합법이나 폭행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북한으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한 탈북자들도 한목소리로 브로커의 난폭한 언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브로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탈북자 지원이 더욱 상세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북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원과 같은 탈북자 지원기관이 한국 사회의 실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거론된다.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만 믿고 입국한 탈북자들이 각박한 현실에 부딪혀 쉽게 좌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154억 투입 RDF 민간투자자 제안서 평가
광주시, 조달청에 맡긴다

공정성·전문성 시비 차단

조달청은 전국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위탁 수행하는 곳으로, 최적의 절차와 매뉴얼, 숙련된 지원 인력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을 구축하고 있다.

송용수 광주시 폐기물 시설 담당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게 됐다"면서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투자자 선정부터 시공, 운영까지 투명하게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일대 2만 1900㎡ 부지에 하루 800t 처리 규모로 건설되는 RDF 시설은 사업비 1154억원(민간투자자 45%, 시비 5%, 국비 50%)을 투입해 오는 2015년 완공될 예정이며, 민간투자자가 15년간 운영한 뒤 시에 운영권을 넘기게 된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10·4선언 6주년 민족통일대회

10·4선언 6주년을 기념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민족통일대회가 3일 오후 강원 고성군 거진읍 명태축제장에서 열리고 있다. /연남수

‘원전 비리’ 한수원 등 간부

사표후에도 급여 93억 챙겨

이낙연 의원 지적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엉터리 원전 부품 문제와 관련해 사표를 제출했던 1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수원과 한전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난 6월13일 사직서를 제출한 한수원 과 한전기술 간부 249명(한수원 178명·한전기술 71명)에게 지난 9월까지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

여는 모두 93억1344억원에 달했다.

한수원은 사표 제출자 178명에 대해 4개월간 75억4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1인당 월평균 1059만원을 받은 셈이다. 1인 월 최고 급여는 1557만원이나 됐다.

한전기술의 임원 4명은 이 기간 1억3323만원(1인 최고 월 848만원)을 지급받았고, 수석급 67명은 15억 8369만원(1인 최고 월 623만원)을 챙겼다. 한수원은 지난달 26일 새 사장이 취임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들의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U대회 실전모드 전환해야”

FISU 관계자 현장 점검 마무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일 광주를 방문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관계자들이 '대회 실전모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마크 반덴플라스 FISU 국장은 3일,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면서 "대회가 2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제는 실전상황이라는 생각으로 광주U대회 조직위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라며 "FISU와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내부 조직 간의 원활한 기능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잔U대회에서 광주로 대회를 가져온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종합 점검에서 FISU는 2개 팀으로 나뉘어 3일간 경기, 비경기, 정보통신 등 3개 분야에 걸쳐 현장을 점검했다.

비경기 분야와 관련해서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제 대회기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직을 실전모드로 개편, 완벽한 대비 체제를 수립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170개국 이상의 국가별 대표단에 대한 모든 지원 서비스가 윈스 톨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 업무 연결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

언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등록인증 시스템의 조기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단들이 대회 1년 전에는 참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또 이들은 대회 1년 전부터 항공 등의 교통편 예약을 하기 때문에 대표단 관련 숙박, 수송 등에 대한 정보들을 서둘러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시설 등에 대해서는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가 빠른수록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21개 종합종목에 대한 사전시험경기(test event)를 경기별로 차려 경기운영과 함께 모든 시설들의 정상적인 작동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윤석 2015광주U대회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FISU의 종합점검은 마지막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시점에 좋은 조언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FISU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도출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민선 5기 신규사업 139건

국비 4조4800억 지원 이끌어 내

TF팀 운영-지역의원 공조

광주시가 민선 5기 4년동안 신규사업 139건을 자체 발굴해 4조4861억원의 국비지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자체 발굴한 신규사업 139건이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됐으며, 2011년 1125억원, 2012년 1598억원, 2013년 1895억원 등 461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또 2014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4조243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주요 신규 국비사업은 ▲광주야구장 건립(298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600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1283억원) ▲제2컨벤션센터 건립(280억원) ▲제2순환도로 2구간 건설(4865억원) ▲동광주~광산(간 호남고속도로 확장(2954억원) ▲CT연구원 기반구축(2945억원) ▲무등산 국립공원(500억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기반구축(573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1조 437억원) 등이다.

서병천 광주시 자원조정 담당은 "국비확보 전담 TF팀을 구성해 중앙부처 및 기재부의 예산편성 동향을 파악·대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등과 수시로 정책협의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게 신규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광주시 민원처리 만족도 '최우수'

광주시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민원행정부문에서 '최우수(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합동평가는 전국 7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광주시는 민원행정분야 총 5개 중 ▲민원처리 신속성 ▲거부처분 민원 이의신청 고지율 ▲민원제도개선 발굴 및 서비스 개선율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및 증가율은 '나' 등급을 받

아 종합 점수 '최우수(가)'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김경미 광주시 120민원봉사팀 담당은 "광주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사업을 추진한 주력한 결과물"이라며 "특히 개별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인 부분이 높은 점수를 이끌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사정상 “급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 감정가/시세 - 23억원
- ▶ 임 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 대 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매매가 - 22억원
- ▶ 수 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문의(주인직매) 010-3605-5000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등기 또는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합니다.

투자금은 최소 1억원 이상이고
투자기간은 1년 정도이고
수익률은 년 20% 이상입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